

# 손짓 하나로 무심법문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벽봉 스님 (대구 대원사 조실)



단조로운 생활 속에 엄밀의 끈을 놓지 않는 벽봉 스님. 노스님의 진잔한 모습이 꽃보다 아름답다.



오전과 오후 한시간씩의 포행은 소중한 일과다.

기자가 팔공산 자락의 대원사를 찾았을 때, 자그마한 체구의 벽봉(벽峰·84)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동네를 한바퀴 돌아 다시 도량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빠르지는 않지만 한결같은 발걸음으로 오전 포행을 다녀 오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정지되어 있는 듯 고요하고 스님의 눈은 영원한 진리의 길로 이어진 듯 그윽하다. 법당 앞에서 기자를 본

스님은 불법처럼 따뜻하고 해맑은 웃음으로 반겨주었다. 동자의 천진면목이 드러나는 웃음이랄까. 벽봉 스님은 3년 전 신축법당 지하에 고인 빗물을 밤새 퍼내다 쓰러져 위험한 고비를 넘긴 경력이 있다. 이후 스님은 더 이상 발입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 아침과 저녁 두 차례 포행을 중요한 일과로 삼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작은 일 하나에도 우주의 진리와 생명의 가르침이 담겨 있음을 잊지 않는 생활

고 있음을 스님의 말 한마디에 알 수 있었다. 산책을 할 때, 스님이 씩씩이 입을 오물거렸던 이유도 이제 알았다. 스님은 “3년 전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을 때조차도 오직 엄불삼매에 몰입했고, 6시간 만에 땀에 흠뻑 젖은 채 깨어날 수 있었다”고 먼 옛날 이야기듯 하듯 말씀하신다. “나는 무조건 부지런하면 좋은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 새벽4시쯤 일어나 움직이는

있다는 스님은 나이 30이 넘어 중학교에 들어가고, 40이 넘어 경북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명대 교육대학원까지 수료하는 열성을 보였다. 스님은 서양학문을 공부하면서 불교가 얼마나 깊고 요묘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가를 더욱 느끼게 됐으며 철학은 불교와 비슷하지만 그 깊이를 따르지 못한다고 말했다. 18년째 스님을 시봉해온 이춘자(61)보살은 벽봉 스님의 삶도 이와 같다고 말했다. “스님은 한없이 부지런하고 머슴처럼 일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3년 전만해도 아침 저녁 예불시간과 하루 세 끼 공양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밭에서 산에서 일을 하며 보냈습니다. 그래서 웃은 항상 더럽혀져 있었지요. 그런데도 스님은 한사코 그 옷을 그냥 입고 다니셨어요. ‘겉은 물 들인 썬 치면 된다’면서요. 괜히 시봉하는 보살들이나 스님 체면 생각해 안달이었지 스님은 아랑곳하지 않은채 묵묵히 일만 하셨습니까.”

그저 일하고 기도하고 불사하는 것 밖에 몰랐다. 평생 옷 한 벌 먹을 것 하나 사는 법이 없었던 스님은 혹 외출해야 할때면 꼭 버스만 타고 다녔다. 그것도 입석 버스만. 벽봉 스님은 평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늘 발걸음 하나 손짓 하나로 무심의 법을 은연중 설했다. 상좌들에게 늘 이르듯 평생 생활 가운데 바른 것을 실천하며 오롯이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는 벽봉 스님의 삶은 그 자체만으로도 수행의 바른 지침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수행을 씬 없이 일관하는 노스님의 자취에서 푸른 향의 서늘함을 이룰게나마 느낄 수 있음은 분명하다.

글=배지선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 평생 무소유 실천...내 것 사본 적 없어

## 자나 깨나 씩없이 엄불, 일상 자체가 수행

속 수행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벽봉 스님의 일상은 하루 두 번 한 시간 남짓 동네 한바퀴를 도는 포행시간을 제외하면 새벽 4시에 일어나 엄불하고 책보고 공부하는 것이 전부다. 스님의 수행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 걸까? 포행 후 요사채로 들어와 초를 켜고 향을 사르는 스님에게 조용히 여쭙었다. “스님, 늘 방편으로 삼는 화두가 있으십니까?” “아미타불본심미묘진언 다나타 올 아리다라 사바하” 라고 엄하지. “무슨 뜻인가요?” “뜻? 없어요. 진언이지” “생각 너머 본래면목을 찾는 정진을 씩없이 이어가

것이 맞아요. 새벽2시에도 1시에도 일어나 일을 했더니 그만 어지러워 늙게 됐거든요.” 3년전이라야 그때도 여든이 넘는 나이인데 새벽 1-2시에 일을 하면 몸에 큰 부담이 올것은 당연한 일. 그러나 스님은 직접 몸을 움직여 사찰을 돌보며 발입을 못하는 것을 미안해 하셨다. 불현듯 노스님의 출가인이던 궁궁해였다. “열 서너 살 즈음 되던 해에 해인사 약수암으로 출가한 누님을 따라 절에 가게 됐지요. 그게 인연이 됐어. 어려운 시절 집에 있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텐데 정말 잘한 일이야.” 스님의 출가는 전생에서 이어지듯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또, 어릴 때부터 무자정 공부를 하고 싶

## 백장선사 가르침 실천

벽봉 스님은 1923년 성주에서 출생한 벽봉 스님은 1936년 해인사에서 석우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39년 동안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48년 석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스님은 49년까지 해인사에서 5하안거를 성만하고, 해인사 강원 사직과를 수료했다. 거창 연수사 칠곡 송림사, 대구보현사 주지를 거쳐 동화사 주지를 역임하고 76년에는 조계종 총무원 종정 사서실장을 91년에는 대구 보현사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소임을 맡기도 했다. 벽봉 스님은 1993년 대원사 주지에 취임한후 현재 대구 팔공산 대원사 조실로 뚝스행자들의 바른 지침이 되고 있다.

**DVSS** 부처님의 소중한 사찰과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CCTV, DVR 설치 및 판매 전문

DVR+모니터+주 · 야간적외선카메라2대 = 200만원, 카메라한대추가시 + 40만

“보안은 예방”

**CCTV**

3대 만족  
품질, 가격, 서비스

사업내용  
· CCTV 판매 및 설치 공사  
· 청소, 경비용역  
· 방범 출입통제 관리 시스템

시공사찰  
· 대성사 · 송림사  
· 보현사 · 선운사  
· 도솔암 · 계암사  
· 안국사

A1 에이원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지사장 혜철 합장  
(주)에이원시스템 전화 043)732-5560/011-9422-8453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02)730-0705

**5월 15일 출발 실�크로드 성지 순례 12일**  
(5월 6일까지 마감)

동참금 : ₩ 1,990,000원 (개인 경비 외 모두 포함)

순례 코스  
 □ 서안 - 법문사 불지사리, 병마웅  
 □ 난주 - 불교 벽화의 진수 병영사 석굴  
 □ 둔황 - 둔황 예술의 결정 막고굴, 신비의 산 명사산  
 □ 투루판 - 천불동, 아스타나 고분군, 서유기로 유명한 화염산  
 □ 쿠얼러 - 버스팅 호수  
 □ 쿠차 - 천산 신비 대 협곡, 키질 석굴  
 □ 카스 - 황비묘, 청진사, 카리쿠리 호수  
 □ 우루무치 - 천산천지

유람선으로 출발하는 중국 산동성 성지 순례 5박 6일 ₩450,000원 (화동배리 이용)

북경 사찰 순례 및 관광 7일 (유람선 이용 금요일 출발) ₩450,000원 (가이드 기사 팁 포함, 비자, TAX 별도)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록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 작은 일 하나에도 우주 진리 담겨 있어

## 벽봉 스님의 가르침

어릴 때부터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 40이 넘어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지요. 철학은 불교와 매우 비슷한 구석이 있지만 그 깊이가 불교를 따르지 못합니다. 반면, 불교는 생활 가운데 실천하며 평생 스스로 닦아가야 하는데, 철학과는 비교할 수 없이 깊습니다.

나의 은사 석우 스님께서는 항상 "이놈아 잘해라" 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지켜 보셨지요. 나는 상좌들에게 "수행은 누가 대신 할수도 없고 본인이 바르게 하는 것이니 열심히 하라"고 이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바른 것이 있으니 항상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행동으로 정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작은 일 하나에도 우주의 진리와 생명의 가르침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온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것도 강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고 깨침을 얻으려는 수행인의 본분인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 없는 일 하나에도 온 마음을 쏟아 바라본다면 작은 육수수한 일에도 온 우주 생명의 가르침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되고 하찮은 육수수 하나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 자기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갖추고 남을 위해 써야 합니다

자연히 바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마음은 바른 생각으로 이어지고 바른 행동으로 옮겨져 생활속에서 스스로 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자의 삶이요, 수행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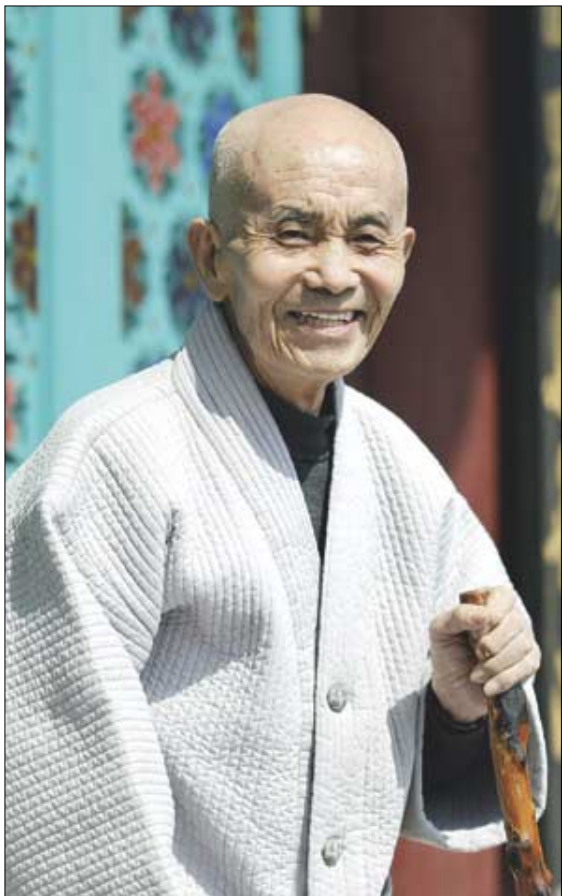
그런데 모두 자기 앞에 놓인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가르침이나 수행이 멀리 고차원적인 그 무엇이라는 기대와 환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번뇌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은 돈을 살의 척도로 삼고 생활하다 보니 끝없는 욕심으로 번뇌에 빠뜨리지요. 바른 마음으로 바른 생각을 갖고 바른 행동으로 정진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욕심이란 끝이 없어서 좋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좋은 것을 탐하는 법이니까요. 자기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갖추고, 나머지는 남을 위해 써야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 항상 번뇌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는 백장선사의 가르침대로 살기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침 저녁 예불시간과 하루 세끼 공양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밭에서 일을 했지요. 가을에는 밭작물을 거둬들이고, 겨울에는 땅을 파서 다음해 농사를 대비했습니다.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동안 작은 일 하나에도 우주의 진리와 생명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깨 한 대공과 육수수알 하나에도 우주의 진리와 생명의 가르침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어느덧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과 수행, 기도와 정진이 따로 없이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분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자연스럽게 대하고 순리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끔 힘든 일도 생기지요. 모두 수행의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아무런 어려운 일이 닦쳐도 모두 끊임없이 배우는 수행의 과정이러니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



불자의 삶 자체가 기도이고 수행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벽봉 스님.

면 어렵다 힘들다 생각했던 일들이 저절로 풀어나갈 것입니다. 예전처럼 일을 못하게 된 요즘도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지극히 단순한 일상 속에서 단조롭다 지겹다 생각할 겨를이 없을 만큼 값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 두 번의 포행시간에서 또 다른 수행의 맛을 느낍니다. 내가 밟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정성을 다하지요. 지금정성으로 '아미타불본심묘묘진언'을 읊하는 가운데 건강도 차츰 좋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일을 하는 재가불자들이든 일을 수행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자들이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묻곤 하는데 기도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기도를 하는 '편리한 사교'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은 불자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불자의 삶 자체가 기도이고 수행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은 이를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인 인연법을 철저히 밟고 기도를 하든지 염불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늘 침착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연법을 확실히 밟기만 해도 삶 자체가 조심스럽고 신중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생명이 불성을 지녔음을 알게 되고, 당연히 그 생명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혜도 갖추고 착한 일만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 깊은 믿음이 있어야하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출가수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마대사와 양무제 사이에 오고간 유명한 이야기를 통한 가르침을 명심해야 합니다. 달마가 불심이 강하고 공덕이 많이 쌓은 양무제에게 "공덕이 없다"고 한 까닭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수행을 통한 무무(無漏)의 공덕이야말로 참 공덕이며, 밖으로 쌓는 공덕은 인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무(有漏)의 공덕일 뿐이라는 간절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즉 출가자라면 불사도 좋고 포교도 좋지만 먼저 치열한 수행을 통한 자신의 본래면목을 활연관통(豁然貫通)해야 올바른 포교와 불사를 할 수 있고, 참된 공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배지선기자 · 사진=박재원기자

##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58>



### 업, 전생의 죄값음일까?

몇 달 전, 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절의 한 여자신도가 스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스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여쭙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불교가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참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들려준 스님의 해결책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보살님이 전생에 지은 죄를 갚는 것이니까 참으십시오."

그러나 매 맞고 사는 그 여자는 전생에 매 맞을 것을 하였으니 이번 생에 그 매를 다 맞아야 업에서 풀려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경전을 읽다보면 부처님이 전생을 말씀하는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다른 여인을 둘째 아내로 들이기로 하였

다. 그리고 다양한 상담과 심리분석을 통해 유해도 남편은 여전히 아내를 때릴 거라는 말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정말 '내가 현재 만난 불행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생에 있으니 피하려고도 하지 말고 감수해낼 수밖에 없다'는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런 것이 부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이런 전생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는, 지금 현재 현명하게 선업을 지어서 그 끔찍한 반복을 끊으려고 힘쓰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였지 '그러니 그냥 당하고 살라'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뭔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의도건, 악한 의도건,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게 '업'입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게 업인 것입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죽을 죄를 지었건, 영웅의 삶을 살았던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고, 나는 어떤 업이든 '현재'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매 맞는 여자의 경우, 정말 그 여자가 전생에 매 맞을 것을 해서 피할 도리가 없다면 그 남편이 단란한 가정에서 자라나 성격상의 문제가 전혀 없어도 그 아내를 때렸다는 말이 됩니

## 매맞는 아내, 전생의 죄값이니 참아야 할까요? 폭력 원인 찾아 해결하기 위해 '업' 일으켜야죠

습니다. 그리하여 한 집안에 남편 한 사람과 두 명의 아내가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 사람이 한 집에서 살아가려니 뜻밖에도 첫째 아내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나는 허니 신체가 되고 갈까?'

그리하여 둘째 아내의 임신을 방해하게 되었고 두 번째 임신까지는 용케 낙태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임신에서는 아이를 낳다가 둘째 아내와 아기 둘 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다. 둘째 아내는 죽어가면서 한없는 원한을 품었고, 남편도 결국 그녀의 잔인한 행실을 알아 채고는 모질게 매질하여 죽이고 말았습다.

그 후 두 여인은 태어날 때마다 원수지간이 되어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죽은 첫째 부인은 암탉으로, 둘째 부인은 고양이로 태어나더니 이번에는 암탉의 알을 고양이 가 모조리 먹어치웠습니다. 여봐란 듯이 복수를 한 것이지요. 곧이어 암탉은 표범으로 고양이는 사슴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표범이 사슴을 잡아먹었습니다. 역시 통쾌하게 복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두 여인은 헤어질 수 없이 많은 생사윤회를 되풀이하면서 원한과 복수를

다. 그리고 다양한 상담과 심리분석을 통해 유해도 남편은 여전히 아내를 때릴 거라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매 맞는 여자가 해야 할 일은 전생의 죄 운운할 것이 아니라 남편이 왜 이리 폭력적인지 그 이유를 빨리 찾아서 치료와 상담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남편의 어떤 시절에 문제는 없었는지, 부부간의 대화법에 무슨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 하다 못해 환경이나 음식이 너무 자극적이지는 않는지, 다각도로 남편의 폭력을 해결하려고 지금 당장 '업'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 매 맞는 아내가 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점점 거칠어가는 이 사회도 함께 문제풀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매질을 참고 당해내는 것이 어리잖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의 악업을 조장하는 '죄'는 또 어찌 하시렵니까? 업은 전생의 죄값음을 말해주려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 당신의 현재와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부처님의 명쾌한 문제해결법인 것입니다.

■ 이미령(통국역경원 역경위원)

한국불교박람회 (부스번호 3동 N8호) 제품 다수 전시 상표등록 : 614981호

## 수제화로 제작 滿 行 靴 화

가득한 만 행

**사계절 단화**

기압식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망사 단화**

블크 중앙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기능성 지압 깔창**

(동) 발병에 무용병기

- 규격 : 215~290mm (크기에 따라 조절가능)
- 가격 : 20,000원

**최고의 선물**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제품을 받아보시고 구입결정 승급하세요

## 사찰 연등 및 전선 (별당용)

불자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분리형**

**일체형**

**등 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전구 (정품)**

-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3W, 5W, 10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필라멘트가 6배 (특 필라멘트)로 빛이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 ▶ 시달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 ▶ 건전지용 초 방생, 탐들이 행사용
- ▶ 청사조종 및 초종 길에대

**연 등 (정품)**

법당용(공단형), 영가동, 오색동, 황금동, 주불동, 특수등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 ~ 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 ~ 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